

깊은 영혼치유의 중요성을 알려준 사도 요한 -복음으로 여는 요한삼서- 창세기 1:27-28, 요한삼서 1:1-3

정윤돈 목사님

* **창1:27-28**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 **요삼1:1-3**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 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있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혜와 공휟과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 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 가운데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모든 헌신을 통해서 영육 간의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과 영육 간의 모든 질병과 문제도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응답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전도와 선교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그리고 내가 있는 직장 and 산업, 특별히 후대를 위하여 올인하며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주님의 성전에 모였습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그러한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절대계획과 나를 통해 깨닫기를 원하시는 절대미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언약으로 주실 성취될 언약의 말씀, 내가 도전하며 실천해야 할 레마(Rhema)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론 : 영혼이 잘됨과 범사의 축복

오늘은 요한삼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요한삼서는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으며 성경 중에서 두 번째로 짧은 내용 중 하나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의 영혼이 잘될 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다. 타락 전 인간은 모든 것이 풍요롭고 강건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은 사탄에게 속아 모든 것을 빼앗겼다. 하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원래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일본질하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 영적인 것과 진리가 회복되는 그 개인과 가정과 가문은 굉장한 축복을 받게 되며, 그 민족 또한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다. 중국을 예로 들면보자. 나는 중국을 특별히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지만, 중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곳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한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중국 인구가 14억인데 그중 수천만 명이 기독교인이다. 내 제자가 현지 사역자를 연결해 주어서 소식을 듣는데, 인터넷으로 말씀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계속 연결되어 수천 명, 수만 명에 이룬다고 한다. 다윗이 나라를 건강하게 하기위해 1천 파수병대를 세웠던 것처럼, 중국 가정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땅대를 세우고 있다. 정부가 핍박하고 문을 닫게 하면 또 다른 곳에서 문을 열고, 그렇게 복음을 지켜나가고 있다. 작년에 미국이 경제적으로 압박해도 중국이 무역 흑자를 낸 것을 나는 영적으로 바라본다. 공산당 독재는 틀렸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이고 그 나라를 유지하시는 것이다. 반대로 우상을 섬기는 나라, 남미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무속과 저술이 가득한 나라들을 보라. 다 어렵게 살고 있다. 복음이 들어간 유럽,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우리 한국을 보라. 우리가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다. 불과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고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축복을 받은 것이다. 앞으로도 이 나라와 민족은 여러분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될 줄 믿는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다.

영과 혼과 육의 관계를 보자. 허브리스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라고 했다. 영과 혼, 육신은 연결되어 있다. 영혼이 잘되면 관절도 좋아진다. 우리 건강에 관절이 참 중요한데, 나이가 들어 관절이 상하면 운동도 못 하고 오래 살기 힘들다. 그런데 영혼이 잘되면 건강관리를 하게 된다. 영이 잘못되면 내 몸이 해로운 것을 자꾸 하게 된다. 자화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관계 갈등을 일으키며 결국 건강을 해친다. 반대로 영이 잘되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다"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나 자신을 소중하게 가꾸게 된

다. 운동도 하고, 나쁜 음식은 피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지킨다. 영혼이 잘될 때 관절 뿐만 아니라 피를 만드는 골수까지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이것은 이기적이 되라는 말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야 다른 사람을 돕고 세상을 살릴 수 있다. 요셉이 노예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걸을 때 불평하고 투덜거렸다. 영적 상태가 '투덜거림'이면 복의 근원이 될 수 없고 마귀에게 지게 된다.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열려할 필요 없다.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감사하길 축원드린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과 가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는 이미 이루었다. 영어의 '과거완료' 시제처럼, 주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에 믿음으로 붙잡을 때 반드시 성취될 줄 믿으시기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다. 미래에 주실 그 응답 때문에 미리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영적상태가 되는 길이다. 예배시간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는 시간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영혼이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시간이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다.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남을 돕고 건강하게 치유하며 배울 수 있는 풍성한 생명이 있다. 실제로 그런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능력을 갖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한다.

영적인 문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영적인 문제는 근본문제이다. 이는 근본적인 치유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구원받지 못해 마귀의 자녀된 신분이라는 뜻이다. 이 상태에서서는 죄문제와 지옥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는 국회의원들은 검사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미래를 알 수 없기에 무속과 점술,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심을 믿기에 점을 치거나 부적을 붙일 필요가 없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언약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또한, 구원은 겨우 받았지만 사탄의 포로가 되고 속국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중독에 빠지고 범죄에 빠진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지리지로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계속해서 광야생활, 노예생활, 속국생활 같은 어려움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왕권을 가진 자로서 흑암을 쫓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나의 영적 상태가 포로와 노예가 되고 만다.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 포로수용소에 갇힌 군인과 같다. 총도 없고 무기도 없으니 전도도 못 하고, 정복도 못 하고, 제자도 세우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뭐가 안 돼요"라고 하지 마라. 영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란다. 저는 과거에 '미약퇴치운동본부' 사역을 10년 동안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다. 그분들은 절대 풀을 수 없을 것 같은 마약, 알코올, 도박, 폭력 등 온갖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변해버리는 것이다. 건강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밑바닥상태에서 영혼이 갈급해지니,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게 되고 그 이후 모든 중독을 끊어버렸다. 어설픔게 예수를 믿는 것보다 그들의 절박함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꼭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주님을 영접하고 깨달아야 하겠는가? 아니다. 강단메시지를 통해 모든 답과 결론을 얻어라. 세상에 내가 실패하고 두들겨 맞고 다 잃어버린 뒤, 늙어서 깨닫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이 풀송이보다 달다는 것을 체험하자. 아침에 일어날 때 짜증내며 일어나지 말고, 눈을 뜨자마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자. 스트레칭하고 기도하는 단 1분, 5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저녁에 잘 때 음악을 듣다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다치지 마시고, 여러분은 "아, 내에게는 10년이라는 세월이 더 갔구나"라고 생각하며 지금을 준비하자. 자격증도 따고 공부하고, 건강관리도 하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1.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전달한 절대미션

(1) '가이오'라는 인물에 대하여 '가이오'라는 이름은 로마시대에 '철수나' '영희'처럼 흔한 이름이었다. 성경에는 3~4명의 가이오가 등장한다. 첫째는 고린도의 가이오다.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오는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식주인' 가이오가 바로 이 사람이다. 둘째는 마케도나의 가이오다.(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소요사태 때 바울과 같이 있다가 연극장으로 끌려간 인물) 셋째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는 디베 사람 가이오다. 많은 신학자가 요한삼서의 수신자를 이 디베 사람 가이오로 본다. 그는 바울의 선교여행에 동참하여 아시아까지 함께 갔던 제자다. 바울에게 훈련받고, 바울 사후에는 사도 요한과 동역하며 끝까지 교회를 지킨 인물로 추정된다. 사도 요한은 요한삼서 1장 1절에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며 두 번이나 사랑을 강조한다. 그는 교회의 식주인이자, 보호자요 동역자였다. 목회자가 어려움이 있을 때 부탁할 수 있는 든든한 중직자였다.

(2) 가이오에게 준 절대 미션

① 영적 서밋이 되라(요삼1: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이오는 이미 잘되고 있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말처럼, 사도 요한은 그가 더 잘되기를 축복한 것이다. 영혼이 잘되어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다. 저도 나이가 드니 손관절이 안 좋아져서 파라핀치료를 받는데, 뜨거운 데 손을 넣었다 뺏다 하니 좀 부드러워지더라. 우리가 건강관리하고 운동하고 돈을 버는 이유는 무엇인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처럼, 복음과 전도, 선교와 후대를 위해서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지구본을 돌리며 기도한다. 내가 갔던 선교지들을 짚으며 그곳에 70제자가 세워지고 후대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이밖에 우리 교회에서 랩댄트 두 명을 홍콩으로 보내는데,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천만 원 가까이 들어서 보낸다. 왜 보내는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다. 내가 직접 선교지에 못 가더라도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의 선교사로 동참하면 된다. 나는 기도로 다 준비했는데 보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시니,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다.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할 도리를 다했다. 저는 항상 "하나님, 저는 최고로 다 했습니다"라고 기도한다. 가게 하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절대주권을 믿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마음과 생각 속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 전혀 없는 경우다. 오직 먹고사는 문제, 노후걱정, 건강걱정, 자녀걱정,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며 산다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이 진리와 축복의 의미가 깨닫아지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

② 진리 안에서 행하라(요삼1:3)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단과 사이비는 예나 지금이나 계속된다. 통일교는 예수님을 실패자로 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실패했기 때문이고, 문선명이 그 사명을 이어서 완성한다고 가르친다. 정말 지옥에 갈 소리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승리였고, 그 이후 기독교는 로마를 정복하고 전 세계로 뻗어 나갔다. 신진지는 예수님의 영이 이만화에게 임했다고 주장한다. 14만 4천 명 순교자의 영이 신진지 신도들에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무슨 귀신 들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된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다. 여호와와 증인은 1914년에 예수님이 이미 영으로 재림했다고 주장한다. 내가 직접 열 번도 넘게 물어봤는데 다 그분에게 대답하더라.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진리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으면 진리를 볼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으며,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적 어둠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다 아는 사실을 그들은 왜 믿지 못할까? 왜 듣지 못할까? 의아해 할 수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했다. 세상의 빛이 아닌 영적인 빛, 곧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란다. 그 빛이 풍성해지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전도할 수 있으며,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이다. 물론교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미국 대륙에 오셨었다고 주장한다. 물론교도들은 술, 담배, 커피도 안 하고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서 유다 주의 건강보조식품사업을 장악하고 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몸을 막 굴리는데, 진짜 성령충만하면 그런 것들이 끊어진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동지들에게 술, 담배를 끊으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 복음을 전하고 함께 지내다보니 자연스럽게 끊더라. 담배를 살 돈을 모아서 제대할 때 제주도여행 가자고 했더니 진짜로 다 끊고 교회 성가대까지 하더라. 영혼이 조금만 잘되어도 그 모든 것이 열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란다. 여러분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육체의 연안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법사에 유익하다는 사실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우리는 오직 성삼위일체, 부활, 승천,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 최근에 편의점 앞에서 물론교 선교사들을 만났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더라. 그 옆에 있던 편의점 사장님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내가 그분에게 "이 친구들은 삼위일체를 안 믿어서 지옥 가요"라고 비설적으로 말했다. 그랬더니 물론교 선교사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 하더라. 그들은 '삼위'는 믿지만 '일체'는 안 믿는다.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할 때 단순히 '삼위'라고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삼위일체'라고 정확히 말해야 한다. 이단들도 삼위의 하나님은 믿는다. 그러나 그 안에는 반드시 '일체',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본질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와 증인이나 물론교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 세신자들은 이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성삼위일체, 그리스도, 오직 예수, 부활, 승천, 재림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의 모든 기준과 수준, 표준, 그리고 체질이 '나중심', '성공중심', '세상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중심'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③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를 경계하라(요삼1:9-10)

당시 교회에 '디오트레베'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름의 뜻은 '제우스의 양육받은 자다. 그는 으름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교회에서 인정받으면 일하고 안 일해주면 빠지는 사람이다. 그는 사도 요한과 전도팀을 맞대결하지도 않고, 악한 말로 비방하며, 맞대결이라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했다.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영적상태가 어린 아이 같고 마귀에게 속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속히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을 버려야 한다. 내 문제, 내 가정문제, 내 영적문제, 혹은 나의 자랑거리 같은 것들에 매여 있지 말고, 빨리 자정할 대장부가 되어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인생에는 누구나 어려움이 있다. 다들 개인적인 문제가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며, 몸이 아프기도 하다. 그러나 천명과 소명을 가진 사람들은 나라와 타인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다. 무릎이 좋지 않고 손가락 마디가 아파도 그 사명을 다 감당해 낸다. 결국 이것은 영적상태의 차이이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기를 축원한다.

④ 오해받는 자를 인정하고 함께하라(요삼1:12)

'데메트리오'라는 제자가 있었다. 그는 디오트레베와 달리 진리 안에서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다. 교회 안에서 힘이 없고 오해를 받거나 무시당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데메트리오는 못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고" 변호한다. 무슨 말인가? 진짜 성도들은 진실한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이다. 비록 순진해 보이고 영적인 문제가 있어 보일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려 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좋은 성도임을 알아보는 것이다.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다. 영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신다.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강단메시지에 줄을 갖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는다. 그리고 포럼을 해보면 강단에 서지 그대로 너무나 잘 나간다.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정상인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비정상인 것이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정의 어려움이나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무시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중심을 볼 때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이다. 하나님의 강단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교만하지 않으며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내 생각이냐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된 것을 나누고 강단메시지 중심으로 포럼하는 것이 진짜다. 그래야 영적 자유가 된다. 또한 "우리도 증언하노라"라고 했다. 여기서 '우리'는 목회자들

을 말한다. 사도 요한이 볼 때, 남들은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보증하는 것이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잘 모르기 때문에, 목회자 입장에서 걱정이 되어 부탁하는 것이다. "가이오야, 네가 교회의 사명자이자 보좌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이 아니냐. 그러니 이 약해 보이는 사람을 더 인정해 주고, 우리 목회자들도 그를 인정하고 있으니 내가 그를 지켜주라" 이렇게 위탁한 것이다. 이것이 가이오에게 준 미션이다. 여러분도 이 언약 안에 있기를 축원한다.

2. 영혼 치유의 중요성과 방법

(1) 다양한 영적 상태

① 가이오 같은 사람 : 영혼, 육신, 삶이 모두 풍요롭고 건강한 성도다. 바울에게 훈련받고 오랜 신앙의 연륜이 쌓여 흔들림이 없다. ② 데메트리오 같은 사람 : 경제적으로 어렵고 병 들었고 오해도 받지만, 영적으로는 훌륭하다. 오직 복음 아니면 살 수 없기에 더욱 주님을 의지한다. 이것이 오히려 복이다. ③ 디오트레베 같은 사람 : 세상적인 지위와 돈은 있지만, 영적 상태는 빈약하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힌다. ④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 :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으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해 지옥에 가는 사람이다. 대기업 총수, 정치인, 의사, 판사, 변호사, 교수고 그렇지만 죽으면 지옥간다. ⑤ 나사로 같은 사람 : 거지처럼 살았어도 천국 갔다. 서울역 노숙자사역을 하는 임호성 목사님이 계신다. 그분이 돌보는 노숙자분들은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 없지만,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는 나사로와 같은 축복을 받은 분들이다.

(2) 깊은 영과 혼을 치유하는 방법

근본적인 영적 치유는 '원색적인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암송하는 것이다. 다 음 6가지 핵심성경구절이 밑거름이 된다.

-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네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회상 제사(피 제사)를 드릴 때 노예에서 해방된다.

-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들이 믿어질 때 신분이 바뀐다. 간첩이 전향하면 자유인이 되고 혜택을 받듯, 경찰시험에 합격하면 제복을 입고 순만 들어도 차가 서는 권세가 생기듯,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가 주어진다.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권한이 없어진다. 사탄의 권세는 우리 앞에서 힘을 잃는다. 우리는 이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한다. 천사를 동원하고 흑암을 꺾을 권세가 있다. 그러기 위해 성령충만해야 한다. 내 영혼이 충만하면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된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란다. 영접할 때 주어진 그 신분을 알고 충분히 누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어야 하고 성령충만해야 한다. 말씀과 기도, 예배로 충만할 때 역사가 달라진다. 충만함이 약하면 겨우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만 왔다갔다 한다. 그러나 조금 더 충만해지면 주변에 영향을 주고, 더 충만하면 선교도 할 수 있다. 정말 충만해지면 아브라함처럼 시대의 복의 근원이 되어 천 대의 응답을 앞당기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은 우리의 영적 충만함에 따라 누리지는 값이 달라진다. 여러분은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셨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이다. 이 권세를 충만히 누리는 방법은 영혼이 잘되는 것이다. 영혼이 충만해야 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며,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허용해서 믿음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으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예배의 강단말씀,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결론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하고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 원색적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영과 혼과 육신, 성격과 삶이 완전히 치유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개인과 가정, 가문과 교회를 살리고, 모든 나라와 족속을 치유하며 '법사에 잘되고 강건하게'만드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와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삼서 말씀을 통해서 소중한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영혼이 잘되는 비밀이 무엇이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법사에 잘되고 강건하여 모세와 같은 건강함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하나님 천만 배나 허락하여 주셔서, 반드시 천만 제자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이 나라 민족, 거기에 대표로 쓰임받는 바로 우리 교회와 나와 우리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나이다. 아멘"